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암송대회 6일 막내려

교회설립 7주년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본선과 결선이 6일(금)에 있었다.

요한복음 14 - 16장 전장을 외우는 이번 암송대회의 예선은 10월 31일(금)과 11월 1일(주일) 교회학교별로 각각 행해졌다.

각 부서 예선에는 45명이 출전, 이 중 이옥현, 조명녀, 최경애(이상 소망부), 김재웅(장년부), 이점숙(사랑부 교사), 이영조(고등부 교사), 함은희, 이민화(이상 제 2권사회), 김소연(유치부), 최소영(유년부), 이내영(초등부), 이민웅(중등부), 노재균(고등부), 안재희(대학부) 등 모두 1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 결선자는 지난 6일(금) 본선을 거쳐 선발됐다. 결선 심사는 정확도, 자세, 반응도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있던 최종 결선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들은 오늘 찬양예배 시온교우 앞에서 암송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 학생부

최우수상 이민웅(중등부)

우수상 최소영(유년부)

장려상 이내영(초등부), 안재희(대학부)

▶ 성인부

최우수상 이옥현 권사(소망부)

우수상 함은희 권사(제 2권사회)

장려상 김재웅 집사(장년부),

이영조 집사(고등부 교사)

▶ 특별상 김소연(유치부)

특별새벽기도회

미명에 듣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비전2020특별새벽기도회가 2일(월)에 시작됐다. 성도들은 새벽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새벽기도회에 참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있다.

순례자 킬링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심지어 제도 속에 나타난 권위도 흔들리는 시대가 된 듯하다. 권위의 상실은 시대의 기준과 표준을 상실한 것으로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

민주화로 인해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졌다면 그런 종류의 권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하겠지만 정말로 이 사회를 지탱해 가고 지켜줄 권위가 인간 상실의 부패나 윤리적 혼란으로

성경의 권위

무너진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상대적 가치체계에 의한 권위는 상황에 따라 무너질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은 절대 권위가 되므로 그 권위는 영원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적 논리와 합리적 사고에 부합되기 때문에 아니고 수 천년 동안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애독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도 아닌, 그의 권위는 비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금주의 비전2020운동

▶ 전교인 노방전도(오늘 I·II·III부 예배 후) - 2인 이상 노방전도 실시

▶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오늘 마감)

▶ 잃은 양 찾기 대상자 선정 및 명단 제출(오늘 마감)

▶ 비전2020특별새벽기도회(21일까지)

시간: 오전5시 - 6시 강사: 이종윤 목사

▶ 24시간 연속기도회

오전6시 - 오후 10시: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자

철야기도 담당부서 8일(주일) 제1·2권사회

9일(월) 유년부 교사

10일(화) 초등부 교사

11일(수) 중등부 교사

12일(목) 고등부 교사

13일(금) 스테반회, 대학부

▶ 금요심야기도회(13일 오후 9시 - 10시 30분)

주력부대: 베드로 선교회, 유년부, 초등부,

베들레헴 찬양대

▶ 토요등반전도(14일 오후 3시)

비전2020운동본부 임직원 및 실행위원

(오후 2시 30분 교회 집합)

1999년 당회조직 발표

내년도 당회조직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우리교회 12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4개 기관의 기관장이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와 부서의 하부 조직은 11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1999년도 각 부서에서 수고할 일꾼들은 12월 첫 주부터 셋째주까지 임명, 발표된다.

▶ 위원회

당회서기 김영준

예배위원장 성준경

교육위원장 김태기

전도위원장 최종시

구제위원장 노문환

재정위원장 박철훈

동산위원장 김영준

찬양위원장 이영기

교구위원장 정병무

선교위원장 김상철

관리위원장 윤봉준

건축위원장 오정수

인사위원장 김광신

▶ 기관

총무국 김병환

교회법률상담소

성화회 나희주

비전2020 김기호

이사야 강해

심판이 올 것이다

이사야 13장 1-8절

이사야서 13장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변국, 즉 바벨론, 앗시리아, 두로, 모압, 다메섹, 애굽과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1.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받는 백성이 되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말은 역사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사1:1). 그러므로 이사야의 경고는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 사람에게 준 경고는 그들에게는 환란의 징이 되었습니다. 경고를 바로 받지 못하게 되면 경고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바로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경고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그 말을 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2.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죄는 큰 것이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2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비록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민족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쳐부수기 위해서 한 힘을 내세워 천부 포로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것 뿐입니다.

자산이란 나무가 전혀 없는 산을 말합니다. 그 자산 위에 기호를 세웠다 함은 것대가 잘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산 위에 기호가 세워지는 날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직 앗시리아가 세력을 잡고 있을 때이고 바벨론은 힘이 없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힘을 발휘할 때는 그때로부터 적어도 1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이 일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너희는 애굽할 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사 13:1-8)

이종운 목사



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심은 바벨론의 왕궁까지도 점령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3.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3절).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공격한 군대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사 45:1)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를 당시에 메시아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군대를 은근히 기뻐하지 않는 자(사 13:17), 거룩히 구별한 자(3절),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3절)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같은 민족을 일으키시어 이렇게 성별하신 것입니다.

다. 바벨론 대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생각지도 않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5절).

5절의 먼 나라는 유브라테 강 건너편의 나라를 말합니다. 유브라테 강 건너편의 나라 바사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강대국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애굽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6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항거할 자가 없습니다. BC 538년에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애굽하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날에는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을 항상 생각하며 이 날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

■...이 글은 9월 21일(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2교시에서
김영한 박사(송실대)가 강의한 것을 요약한 것임 ■

머릿말

한국교회는 IMF시대를 맞아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온 경제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에서 비롯된 때문이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1. 현대 신앙의 위기 ; 도전하는 현상들

1) 물질주의 -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현대인은 오히려 영적 비전을 상실하고 있다.

2) 윤리적 열매와 내실없는 신앙 - IMF는 신뢰성의 위기다. 한국교회는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신용상실에 책임이 있다.

3) 신이교주의 - TV,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안방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폭력과 섹스는 잘라적인 의미만을 던져주고 있다.

4) 점성술 · 환생 - 컴퓨터 PC 통신의 미신 관련서비스는 PC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운명론과 요행심리를 조장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해치고 있다. 또 전생(前生), 환생신드림이 출판, 가요, TV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단골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 정신세계에 무속적 개념이 파고 들어 현실과 환상(幻想)의 혼란, 현실도피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의 종교적 관심이 변형화된 것이다.

5) 뉴에이지 운동 - 이는 기독교사상과 힌두교의 밀교(秘敎)사상을 혼합시키고 이에 점성학까지 동원하는 신비주의적 혼합사상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인신화를 역설하고 추구하고 있으며 "우주와 나는 하나"라는 힌두교의 범신론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6) 포스트모더니즘 -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두가지 입장에서 이해한다. 하나는 시대적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해체 사상이라는 의미이다. 전자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후자는 부정적 의미이다.

후자의 것은 모더니즘과 전통을 송두리째 해체시키는 운동으로서 기독교와 각 종교를 비신화론화 시키며 도덕과 가치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진리나 정의, 인간성은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도덕적 상대주의이다. 이러한 해체사상은 기독교 사상에 도전하는 세속적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다.

2. 21세기 교회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동반하는 시대적 현상 가운데서 다가오는 21세기 교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현대인들에게 영성을 각성시키는 영적 교회 - 영성없는 교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영성이란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conformity to the image of Christ)이다.

2)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 - 21세기 교회는 인류 정신의 유일한 지침서인 영감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성경관의 확립에 달려 있다.

3)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 초대교회는 인적공동체였다(행 2:42). 이상적인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교회, 시대와 현상의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울고 웃는 교회이다.

4) 부단히 갱신하는 개혁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 -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개혁주의 원리(das protestantische Prinzip)이며 개혁교회의 자기 갱신의 원리다.

5) 성경적 올바른 신문과 인간론 정립 - 21세기 교회는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인 신문과 인간론을 재발견해야 한다.

6) 건전한 윤리와 도덕 운동 - 기독교 윤리는 공동체 의식 국민운동이나 경실련, 기독교 윤리운동 처럼 사회의 공공윤리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폐쇄적 근본주의의 극복 - 세속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8)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제시 - 교회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과학기술

적 문화적 정황과 대화해야 한다.

9)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의 각성과 실천 - 생태학적 사고는 자연과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서 이해한다.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로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0) 멀티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독교 복음 전파 - 멀티 미디어는 기독교 복음 선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 정보화 시대에서 주어진 다양한 매세지를 잘 활용하면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나 교회가 설교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컴퓨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대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맺음말

21세기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영성의 회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여야 한다.

교회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흐름에 밀려 따라 다녀서는 안된다.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교권적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심판하시고 문화를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8 비전202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김태기	안사순 여수혜 박형웅
조정옥	조선행 조성욱 조운행 장동숙 홍동기
김현주	조정훈 최완욱
이영숙	김임조 김필순 김태혁 김태균 김석균
김영준	김동국
원복순	박명환
최금자	성옥순
	최정인 박선자 최원섭 최지연

유리, 소금 - 음향실

“불, 불!”인가? “물, 물!”인가?

서경숙(집사, 음향실 봉사자)

보사의 특성상 주일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지난 주 비디오카메라를 담당하는 김민철 군의 생일을 맞아 우리들만의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거의 20년 만에 만져본 음량조정장치(Mixer), 유일한 고령의 아줌마(?)로서 내가 젊은이들과 매주 얼굴을 맞대며 공간을 누린지도 2년이 되었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이 우리 부서의 자리인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은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코미디가 되어 가끔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자주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지난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주일예배 때의 일이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난 후 꺼져야 할 라이트가 안 꺼져서 안내위원 집사님께서

는 “불, 불!” 외치며 사인을 보내셨다. 우리는 그것을 “물, 물!”이라 듣고는 ‘어디가 샌단 말인가?’ 하고 2층에 까지 돌아보며 소동을 피웠다. 생각하면 두고 두고 웃음이 난다.

예배 도중 무선마이크 사고로 정말 가슴이 타들어갈 것만 같았던 순간들, 출력페더(음량조정기)가 다 내려가 있어 소리가 먹통이 되었던 일... 이 모든 일들 뒤에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 번의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재산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특히 특별세례기도회를 마치고 방문해 주신 목사

님 내외분의 격려와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작은 봉사가 하나님 전에 최선의 음향이 되어 메아리칠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계에 손끝을 내민다. 또 냉·온기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음향실 안에 올 겨울엔 전기 히터라도 생길까 기대해 본다.

음향실 가족을 소개하면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 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고 있는 권오현·오철 형제와 박영애 자매, 이번에 청년부 회장이 된 김민철 형제, 막내 손지은이 있다.

“아빠! 모르겠어요, 안의위 저요... 아빠! 어려워요, 그만 두고 싶어요!”

소연아, 기억하니? 이번 대화를 앞두고 성경말씀을 외우면서 네가 했던 말들이란다. 어린 내게는 발음하기도 어려울 낱 단어와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빠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도 아빠가 성경암송을 하라고 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겠지?

소연아! 아직은 어리고 개구장이 같지만 한 너를 볼 때 아빠는 하나님께서 순종에 관하여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를 깨닫곤 한다. 아직 어린 너는 아주 쉽게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단다. 만일 네게 아무런 순종도 요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단다. 아빠는 네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학원을 가거나, 길을 걸을 때에도 집 앞 차도 끝에서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하는 딸에게

말씀의 꿀맛을 알아가길

김시환(집사)

는 일단 멈추어 서서 양쪽을 살펴 도로를 원칙을 만들어 알려 주었지. 아빠는 이것을 네가 절대 순종하기를 원한단다. 왜냐하면 무심코 자동차 길에 내디딘 너의 한 발자국 때문에 너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소연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받는 대가는 불순종의 대가에 비할 수 없이 크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란다.

이제 네가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한다니 기쁘구나. 너는 앞으로 많은 말씀들을 알아야 하고 또한 열심히 암송하여야 한단다.

소연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119:103).

어때, 오늘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목) 연목회 모임을, 13일(금)엔 비전 2020 실천결의대회를 각각 주관한다.

◇ 유아부는 10일(화) 오전 11시 유아부실에서 학부모초청세미나를 연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 이영희 집사이다.

◇ 대학부는 지난 주일 정기 총회에서 회장에 황유석 군, 부회장에 오혜진 양을 각각 선출했다.

◇ 청년부는 지난 주일 정기 총회에서 회장에 김민철 군, 부회장에 손지희 양을 각각 선출했다.

◇ 오늘 점심식사는 최천금·김명숙 권사 가정에서, 지난 주일 식사는 김용호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U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1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해
3. 제 4학기 서울상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설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